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주최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기획 | 미디어교육팀 최용재

제작 | Thinkgood

이 사례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PART 1	제6회	참여자 통계	06
	뉴스읽기 뉴스일기	주제별 통계	07
	공모전 소개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08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심사대전	17
		공모전 참여후기	22
PART 2	수상자 인터뷰& 대표작 모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4
		어린이 저학년	28
		어린이 중학년	32
		어린이 고학년	36
		청소년 중등	40
		청소년 고등	46
		성인	52
		지도자	58
PART 3	공모전 수상 명단		64

대국민 뉴스 리터러시 캠페인

뉴스읽기 뉴스일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어떤 뉴스에는 공감하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뉴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 진위를 판단하기도 하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이 뉴스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며, 올바른 뉴스 이용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뉴스읽기를 실천하는 뉴스일기장'을 배포하고 공모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제6회 뉴스일기 공모전에서는 수상자들의 '좋은 뉴스 고르는 노하우', '뉴스일기를 쓰며 느낀 점', '나만의 뉴스일기장 꾸미기' 등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수상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보고, 그 뉴스를 통해 어떤 생각과 변화를 경험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공모전을 통해 뉴스를 본 그날의 생각을 기록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의견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생활 속에서 허위 정보를 구별하며 뉴스 리터러시를 실천하는 과정을 일기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뿐 아니라 시, 그림 등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색종이, 스티커, 색연필 등 원하는 도구로 여러분의 일기장을 자유롭게 꾸며보세요.

어린이부터 학생, 직장인, 가족,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캠페인, '뉴스·미디어와 함께 하는 일상'을 뉴스일기로 기록해 보세요!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뉴스·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① 뉴스·정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는 능력(여러 출처를 비교해 사실 확인하기), ② 뉴스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소통 능력(뉴스·정보에 대한 생각을 글이나 영상으로), ③ 뉴스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능력(예: 뉴스 저작권과 댓글 예절을 지키기)을 모두 포함합니다.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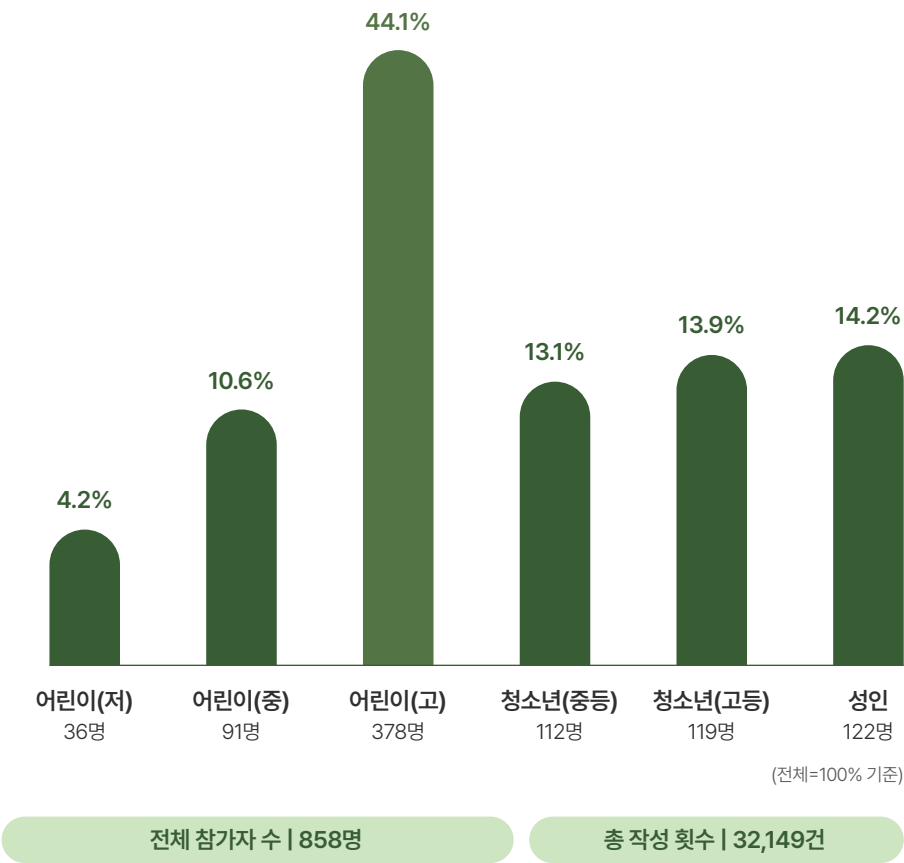
공모전 소개



제6회
뉴스읽기
참여자 통계

전 연령대에서 참여한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어린이(고)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성인, 청소년(고등), 청소년(중등) 순이었습니다. 최다 일기장 수는 365장이었습니다. 최연소 참여자는 8세, 최고령 참여자는 77세였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언제 어디서든 뉴스 일기를 작성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뉴스읽기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요!

연령별
참가자



최다
일기장 수

365장

최연소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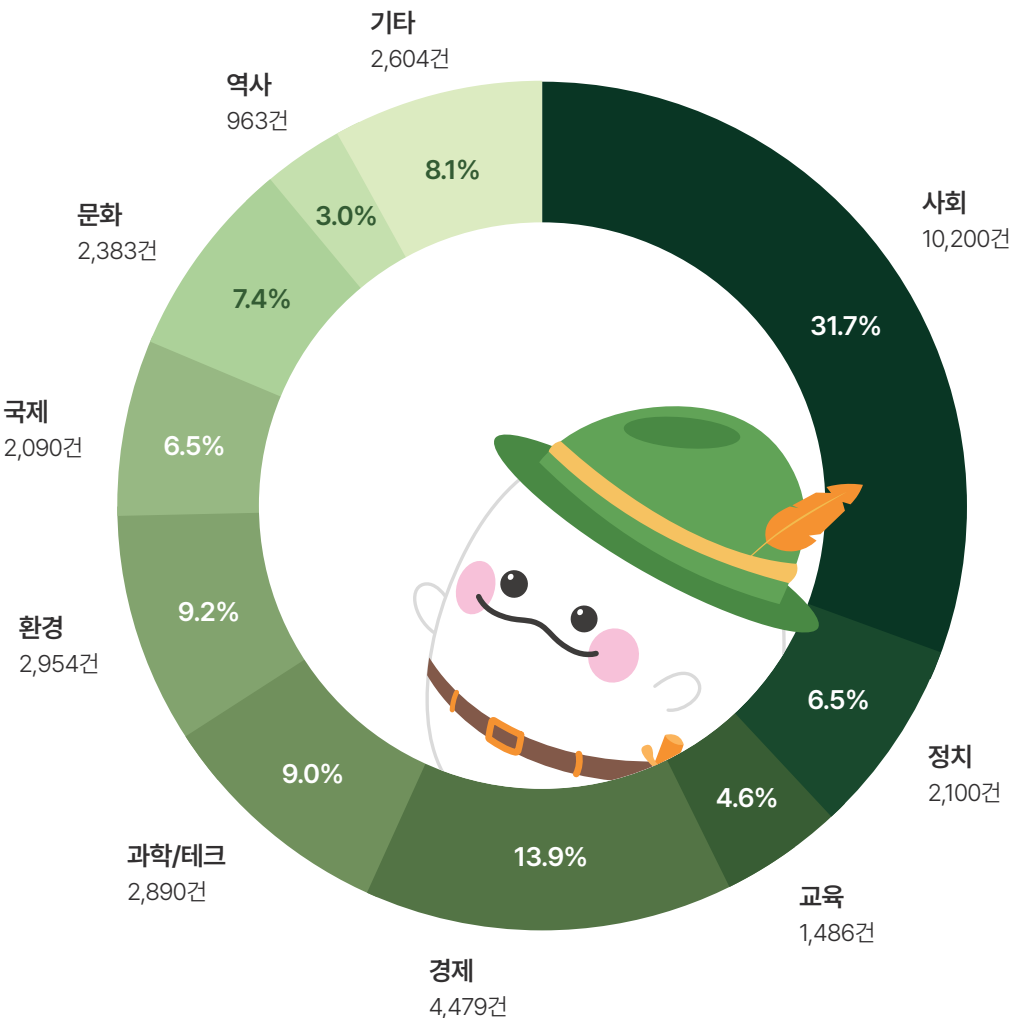
8세

최고령
참여자

77세

제6회
뉴스읽기
주제별 통계

총계 | 32,149건
(전체=100% 기준)



연령별
관심 주제

어린이(저)	어린이(중)	어린이(고)	청소년(중등)	청소년(고등)	성인
사회 환경	사회 경제	환경 과학/테크	교육 문화	사회 경제	경제 국제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미세 플라스틱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의 위협



AI vs AI

AI가 만든 거짓, AI가 밝힌 진실



K시리즈 유행

K문화의 압도적인 질주



미국 관세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폭염 특보

국경없는 더위,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모든 이들의 평안을 빕니다



통신사 해킹사태

일상에 침투한 해킹의 칼날



대선

대한민국,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서다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①

미세 플라스틱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의 위협



어린이(고) - 김서원

미세 플라스틱이 달팽이관에 들어가면 청력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뼈 성장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성인 - 임지인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의 증가 원인과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세 플라스틱 OUT을 위해 실생활의 노력이 필요하다.

No. 9	설악귀악원 2024년 4월 14일		
학교명	이제비	플라스크, 달팽이귀에 있어 숨겨 숨겨. 곤충가장 영어드림다.	
학교 대표명	2024년 4월 14일	연락처 어민이초임원	직책명 김차현
주제	생물 / 진화 / 교육 / 환경 / 과학 / 탐구 / 환경 / 교육 / 진화 / 역사 / 기증		

기사 내용

귀의 구조

Q 달팽이관이 뭐예요?

A 달팽이는 귀의 구조를 통해 소리를 듣는 데 필요한 기관이에요. 이 안에서 수진체와 신경 세포가 있어, 감지하는 소리를 듣는 소리를 한 번 다 맞아요.

Q 어서 플라스크에 들어가요?

A 소리가 쉽게 만든 분자와 성조변화로 더 잘 전달되는 한 마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A 10cm 이하의 물리현상을 만들어요. 4기후로.

A 플리에테이 1.1444의 실험도

안정된 점 : 5.418 초의 반응

연속 점 : 정반대 물리현상

A 증상을 많이, 반대로, 전기기체로 소리를 만들어요. 정반대로 만들어요. 뇌의 문제 등이 발생했어요.

생각 나하면 귀 구조대로 하거나, 때때로, 특히 들리나요? <1.1444>

자제 할게 다. 나는 알 들어는 것의 고통을 모르고만 섹시하게 때문에 그러는 것만. 내 달팽이 귀는 내

나의 예방법

1. 피트병 사용 X
2. 마스크 착용
3. 귀 관리 잘 해
4. 먼지나물로 만지기
5. 플라스틱
6. 정반대

<1.1444>

No. 25 일기 작성일 2025. 07. 24

누가? 아끼 정병세(청거서) 미세 플라닉스 걸출 노년
누가? 박준영 기자

언어: 2025. 07. 18. **언어:** 환경일보 **기타명:** 박준영 기자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문화 / 의료 / 역사 / 기타) <기사 요약>

	오래된 정병세척기	소배망 꽃병세척기
문제	L1B 부동 소수점 → 미세플라스틱 발생	신한 한천 굴뚝 및 미세 플라스틱 발생
원인	정병세척기 생활 공생 X 부동 약화	불완전 비합리 배출로 인한 강도 저하
상상	2024년 12월 ~ 2025년 1월	2025년 1월 ~ 2025년 4월
대응	공식 사과, 환불 및 교환 진행 (사내별 반발)	공식 사과, 환불 약속 (이성 고객 대상)
소비자	증거 채택의 후회적 처리, 단순 환불에 불만	형식적 대응, 증빙 반복 문제 제기
의혹	두 제품에 동일 부품 납품? → "확인 불가"	동일 제조사의 후부 부인

<더 알아보기> 미세 플라닉스는 무엇일까?

Swmm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두께는 1μm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나노 플라스틱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종류는 크게 1차 / 2차 미세 플라스틱과 3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나의 생각 - 마인드맵> 미세플라스틱 및 환경의 관계성

```

    graph TD
      A[미세플라스틱] --> B[환경 오염]
      A --> C[건강 위협]
      A --> D[생태계 파괴]
      A --> E[식품 안전]
      A --> F[해양 생물]
      A --> G[토양 오염]
      A --> H[대기 질]
      A --> I[수질 오염]
      A --> J[지하수 오염]
      A --> K[농업 생산성]
      A --> L[도시 개발]
      A --> M[산업 발전]
      A --> N[문화유산]
      A --> O[관광 산업]
      A --> P[스포츠 경기]
      A --> Q[의료 연구]
      A --> R[법률 제도]
      A --> S[국제 협력]
      A --> T[기술 혁신]
      A --> U[정책 수립]
      A --> V[교육 강화]
      A --> W[시민 참여]
      A --> X[기업 책임]
      A --> Y[정부 역할]
      A --> Z[사회적 합의]
  
```

미세플라스틱 OUT 실생활의 위험 IN

1. 세척 용구 개선했다
2.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텀블러 사용, 다용도를 사용, 텀바키 사용, 포장용품을 주)
3. 자연 친화적인 소비 습관 기르기 (장학 노력의 중요성)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⑧

대선

대한민국,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서다



청소년(중등) - 허정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고 계속 응원하는 마음은 같다. 분명 나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청소년(중등) - 김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우세하지만 야권 후보들의 상승세도 뚜렷하게 나타나 향후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되며, 선거 막판까지 예측불허의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심사대전



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시대, 제대로 읽은 뉴스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뉴스는 독이 되어 판단을 흐린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좋은 뉴스를 가려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뉴스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공모전, 올해는 총 858명이 참여해 32,149장의 일기장이 작성되며 뉴스일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뉴스일기는 어떤 차별점이 있었을까?

현직 교사, 언론인, 교수 등 심사를 진행한 6명의 심사위원에게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의 심사평을 들어보았다.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미래 언론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저)·(중)·(고)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수

효과적이고 올바른 초등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저)·(중)·(고)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언론 편집장

정직하고 명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저)·(중)·(고)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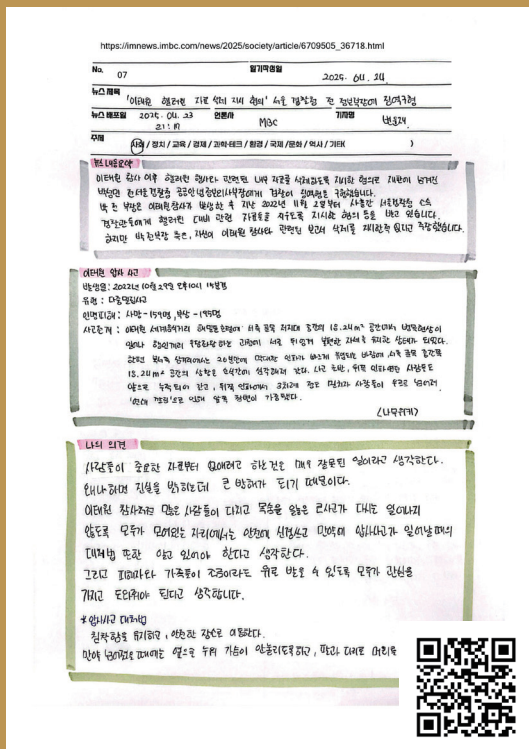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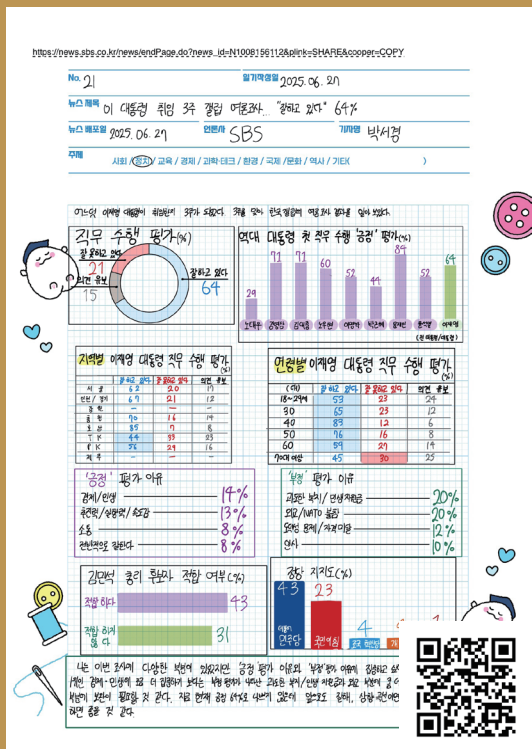
올바른 미디어를 향한 관심과 미래를 위해 고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중·고등)·성인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언론 학자

언론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중·고등)·성인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언론 기자

신속 명확한 언론보도를 위해 심없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중·고등)·성인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뉴스일기를 심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요약과 생각보다 성찰적인 사고의 깊이에 대해 집중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얼마나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담으려고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수]

과학적 사고력과 자기 표현.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을 요약했는지, 관련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적절히 표현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언론 편집장]

‘뉴스에 대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을 창의적으로 드러냈는가?’와 같은 기준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뉴스를 꼼꼼히 읽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지를 주로 보고자 하였습니다.

[언론 학자]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고려하여 보았습니다.

[언론 기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뉴스일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이(중) 학생의 뉴스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중학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고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를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작성했던 “나의 생각” 부분을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뉴스 소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363편을 제출한 초등 중학년 학생의 출품작이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사를 하나씩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충실하게 작성한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을 읽을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언론 편집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뉴스일기 작성 꿀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먼저, 충분히 생각해 볼거리가 있는 뉴스 기사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또는 이슈가 되는 기사를 선택하기보다 여러 관점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기사를 선택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더욱 풍부하게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판적·성찰적 사고를 동원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느낀 점을 적기보다 자신의 삶이나 가치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며 깨달은 점을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뉴스를 선정할 때 자신의 수준에 맞고 정말로 관심이 있는 뉴스를 선택한 다음, 그 뉴스가 자신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뉴스 일기를 써 보길 권장합니다.

[초등교육과 교수]

기사 요약과 함께 자기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는 글을 작성했으면 합니다. 요약의 기본은 육하원칙이고, 글이든 그림이든 메시지가 자기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게 표현해 주세요.

[언론 편집장]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뉴스 읽기의 목적이라면 매 뉴스마다 ‘왜 이 뉴스에는 이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넣었을까?’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기를 써가며 질문의 수준도 점점 높아진다면 이 또한 뉴스 읽기의 재미 아닐까요?

[고등학교 교사]

뉴스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간단한 소감을 덧붙이는 데 그치지 말고, 뉴스에서 다룬 사안에 대해 다른 정보나 관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뉴스를 읽고 나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언론 학자]

공지되는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내가 읽고 싶은 뉴스 기사가 무엇인지와 그 이유, 그래서 어떻게 나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언론 기자]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어린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뉴스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뉴스'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만 다루기보다 우리 사회의 현상이나 시사상식을 어린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성장한다는 것이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수]

어린이들이 어려운 데일리 기사도 읽고 뉴스일기를 쓴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사를 접해봄으로써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높고, 뉴스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 편집장]

'사람 냄새'를 느꼈습니다. 뉴스일기 작품마다 꼭꼭 담겨 있는 진정성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점점 찾기 어려운, 사람만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는 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사]

매일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꾸준히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뉴스를 꼼꼼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읽고 그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언론 학자]

너무나도 좋은 취지의 공모전이라서 주변사람들에게도 추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뉴스읽기와 뉴스일기 작성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 기자]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이다!



통로

뉴스일기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여 사회를 보는 눈을 기르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굳건한 힘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나만의 생각의 힘을 만들어가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수]



운동

꾸준히 하면 글쓰기와 자기표현 능력이 느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내면 뿌듯한 것 까지도요.

[언론 편집장]



비법 양념

궁금하지도 않고 맛없어 보이고
피하고 싶은 뉴스도 비법 양념 하나면
내 스타일대로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교사]



성장기록

뉴스일기를 작성하면 뉴스를
더 깊이 있게 읽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내 생각의 성장기록이 될 수 있다.

[언론학자]



성실한 노력

성실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

[언론기자]

공모전 참여후기 | 서현초등학교



Q1.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1 우리 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체험학습도 많이 갑니다.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책임감을 향상해 줍니다. 또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우리 학교는 클라이밍, VR존과 같은 게 있어서 할 게 많다. 운동부도 많아서 매년 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탁구부)를 나가며 많은 상을 탔다. 그리고 리딩게이트라는 영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급식도 맛있다. 학교 자라는 아니지만 우리 반 선생님께서는 뜨개질을 정말 잘하셔서 우리 반 교실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보는 게 행복하다.
- 3 우리 서현초등학교는 평소에도 리딩게이트라는 활동과 여러 스포츠 클럽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친절하시고 마음이 넓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게 해주신 늘 존경하는 6학년 4반 선생님도 계십니다.
- 4 서현초등학교는 교육 시설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6년을 다니면서 도서관, 체육관 등 많은 시설이 추가되거나 개선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서현초등학교는 리딩게이트를 열심히 하는 학교이다. 전국에서 1등을 한 적도 있고 '리딩게이트 우수학교상'을 받은 적도 있다. 리딩게이트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한 우리 학교가 자랑스롭다. 이 점들뿐만 아니라 서현초등학교는 선생님들께서 모두 좋으시고 스포츠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도 거둔 좋은 학교이다.



Q2. 공모전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 1 학기 초에 선생님께서 함께 뉴스일기를 작성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쓰기 실력도 좋아지고, 만약에 잘한다면 우승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뉴스일기를 하게 되어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2 뉴스 기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많이 찾아보지 않았던 6학년 학기 초, 선생님께서 이 글쓰기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별로 뉴스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서, 내가 뉴스를 읽고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잘해서 상을 타려는 것이 아닌, 글쓰기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말에 이번 기회에 글쓰기와 뉴스 읽기에 흥미를 가져보아겠다고 다짐해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 3 저는 뉴스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자습 시간 동안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며 우리에게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 같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더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했습니다.
- 4 평소에는 글 쓰기를 싫어하는데 이걸 보고 글 쓰기를 조금 좋아하게 됐다. 보상 및 뿌듯함을 위해서 결심했다.

공모전 참여후기 | 대천동대초등학교



Q3. 공모전에 참가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❶ 뉴스를 평소에 많이 읽지 않아서 그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 처음엔 조금 어려웠지만 갈수록 흥미가 생기면서 더 재밌고 많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일기로 인해 글을 쓰는 실력도 좋아지게 되어서 기뻐요 무엇보다 이 기회를 얻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가 1등을 할 줄은 몰랐는데 1등을 하니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 ❷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꾸준히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30편의 뉴스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고생 끝에 1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꾸준함의 중요성과 노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가 모르고 있던 중요한 정보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글쓰기도 점차 익숙해지고 나만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 점이 특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 ❸ 공모전을 참가하면서 경제, 정치, 자연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힘들었고 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들 또한 우리와 같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선생님께서 4학년들과 같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상은 못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반은 '선생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공모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모전에서 1등을 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Q1.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❶ 대천동대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친절하시며, 재미있는 학교입니다.
- ❷ 도서관 이벤트가 많아서 많은 학교 학생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
- ❸ 우리 학교는 대천동대초등학교이며, 학교 인원수가 많은 편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❹ 우리 학교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친구들을 배려, 존중하는 것이 장점이다.
- ❺ 도서관에서 행사를 많이 연다.



Q2. 공모전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 ❶ 친구들과 협동심을 키우고 우정을 키우려고 이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하였다.
- ❷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볼 겸 어차피 순위권 안에 못 들어도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 ❸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건 많이 해봤는데 뉴스를 읽고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 ❹ 처음엔 선생님의 권유로 반 학생들이 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마침 흥미와 관심이 많던 글쓰기가 주제가 되기에 내 글쓰기 수준을 가늠하며 글쓰기를 하였습니다.



Q3. 공모전에 참가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❶ 뉴스일기를 쓰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숙제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어렵지도 않고 좋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벤트에도 당첨돼서 정말 좋았어요.
- ❷ 글쓰기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여러가지 소식을 듣는 동시에 글쓰기를 할 수 있어 좋았던 점, 친구와 함께하며 뉴스일기를 완성하며 친구간의 우정이 깊어진 점이 좋았습니다.
- ❸ 글쓰기는 어렵다는 걸 알았다. 글쓰기 실력이 늘었다. 30회를 쓴 것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 ❹ 정말 힘들었지만 다 했을 때 뿌듯함이 컸다.

공모전 참여후기 |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Q1.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1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는 최고의 명문 상업계 고등학교로 취업하기에 최고의 학교다. 또한, 교내 선생님의 품행은 학생들 모두에게 본보기가 된다. 구미여상 최고!
- 2 상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빠른 취업이 가능한 학교로, 맛있는 급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맛 부분에서도 매력이 커서 시험기간에도 전원 급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줍니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문제집을 원하면 개별적으로 주기도 하고, 방과후에 시간이 나면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2. 공모전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 1 노미경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 대회를 알게 되었는데 이 대회에 참가할 당시 은행이나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PT면접이나 토론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어서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뉴스를 접하고 폭넓은 지식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2 처음에는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낯설고 어려운 경제와 사회 용어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1편씩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3. 공모전에 참가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1 평소 뉴스에 관해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하면서 매일 뉴스 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뉴스를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2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이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랐던 거 같습니다. 매일 하나의 뉴스는 꼭 읽으면서 사회 흐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그렇기에 더 좋은 경향이 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 3 처음에는 내가 과연 열심히 할까? 걱정이 있었지만 하다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뉴스를 찾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면서 갈수록 즐기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재밌었습니다.
- 4 다양한 지식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정치, 경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제 생각을 적으면서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나도 몰랐던 저의 장점을 찾을 수 있어서 다음에 또 다시 참여해서 더 좋은 뉴스 일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PART

2

수상 인터뷰 & 대표작 모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인터뷰

김수연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동안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지만, 막상 결과물을 보고 나서는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아 제출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 한 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7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뉴스를 다양한 매체와 접목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하나의)뉴스 내용에 국한되어 일기를 작성하기보다는 궁금하거나 흥미로운 점이 생겼을 때 관련 책과 논문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는 등 외부 정보와 연결해 작성하는 편이 일기를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칼럼을 써보면 일기를 쓰는 과정이 배로 재밌어집니다! 시간 또한 배로 들지만요!

**Q7. 뉴스일기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저는 일상 속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며 여러 생각을 하곤 했지만 항상 단발성에 그치고 확장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스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SNS를 보다 순간 든 생각조차 짧게라도 메모에 남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남긴 기록들을 다시금 되돌아볼수록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작년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처음으로 도전하여 은상을 받았었는데요, 그에 힘입어 제6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뉴스의 전체적 내용과 요약보다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쓰는 데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만의 칼럼 쓰기”와 같은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나를 골몰하게 만드는 원동력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큰 이슈가 되는 뉴스보다도 제가 진정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뉴스들을 일기에 쓰고자 했습니다. 특히 책이나 영화, 유튜브 같은 매체를 보다가 흥미가 생긴 주제가 꽤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각각의 키워드를 검색해 관련 뉴스를 찾아 보았습니다. 물론 큰 이슈-주요 뉴스들도 중요하기에 당일의 뉴스 또한 틈틈이 챙겨 보려 노력했습니다! 해외 뉴스를 볼 때는 “Ground News”라는 플랫폼을 애용했습니다. 저는 항상 뉴스를 볼 때마다 언론의 정파성으로 인한 편향된 시선을 갖게 될까 늘 걱정이 많았는데, 이 플랫폼은 같은 사건을 다양한 언론 보도로 비교할 수 있고, 정치 성향(L, C, R)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6.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마땅한 규제없이 누구나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요즘에는 거짓이 포함된 AI 속품, 광고 등이 넘쳐나고, 가짜뉴스를 생성해주는 사이트까지 존재해 변화에 비교적 유연한 10대인 저조차도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페이크와 팩트』라는 책이 그나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작 인터뷰

어린이 저학년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금상 이정아 I 금상을 수상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시고, 뉴스를 읽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기를 써 볼 수 있는 공모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상 김리에 I 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여러번 있었는데 끝까지 노력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상 서연후 I 상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상해서 정말 기뻐요. 이번 기회를 통해 신문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신문을 보면서 많은 세상 이야기들을 살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동상 김가빈 I 열심히, 재미있게 썼는데 돼서 좋아요! 다음 뉴스일기도 참여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글쓰기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요.

동상 홍은채 I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뉴스 읽기 뉴스일기를 참여하게 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이정아 I 부모님께서 뉴스를 읽고 일기를 써보는 공모전이 있는데 참가해 보면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뉴스를 읽고 일기를 쓰게 되면 뉴스 내용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심지호 I 처음에는 엄마랑 뉴스를 보면서 시작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제 생각을 글로 써서 재밌었고 공모전에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동상 박지안 I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참여했습니다.

동상 최유찬 I 학교에서 오전활동으로 꾸준히 썼어요.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이정아 I 매일 나오는 다양한 뉴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뉴스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재미있게 뉴스를 읽을 수 있고, 뉴스 주제에 대해 일기를 쓰는 과정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뉴스는 어려웠지만 다양한 뉴스를 읽어 보기 위해 정치, 경제 뉴스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은상 김리에 I 스포츠, 생활, 사회 등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의 뉴스를 주로 보았습니다. 특히 환경 오염 문제나 동물 복지에 관한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은상 서연후 I 제가 관심있는 내용이 담긴 제목의 기사를 골라 읽어 보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상 김가빈 I 선생님이 추천한 걸 해보았어요.

동상 홍은채 I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지금 화제가 되면서 흥미로운 분야로 정했습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6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이정아 I 첫째, 재미 있는 뉴스 고르기입니다. 둘째, 뉴스를 꼼꼼하게 읽고 뉴스 내용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기입니다. 셋째, 정리한 생각을 바탕으로 뉴스에 알맞은 일기를 다양하게 작성하기입니다.

은상 김리에 I 빅인즈 사이트에서 이슈별 랭킹을 보고 관심이 있는 뉴스를 찾았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기사를 쓴 기자에 따라 사용한 단어와 글의 길이가 달라서 제가 이해 하기 쉬운 것으로 골라서 읽었습니다.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를 비교해서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동상 박지안 I 느낀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동상 최유찬 I 자신이 제일 관심있는 분야의 글을 쓰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아요.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이정아 I 매일매일 꾸준히 작성하기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읽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많은 뉴스도 많은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상 서연후 I 꾸준히 신문을 읽고 일기로 기록에 남기려고 노력했고, 일기를 쓸 때에는 저의 경험과 관련짓거나 제 생각을 많이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상 심지호 I 뉴스를 그냥 읽는게 아니라 제 생각을 쓰는게 중요해요. 꾸준히 쓰다보면 생각의 힘이 생기는 거 같아요.

동상 박지안 I 느낀점을 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상 최유찬 I 정확한 정보입니다.

Q6.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이정아 I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뉴스를 읽을 때가 어려웠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던 영역의 뉴스는 잘 읽을 수 있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뉴스는 꼼꼼하게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단어가 많은 뉴스도 차근차근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읽다 보니 차츰 좋아졌습니다.

은상 김리에 I 생각보다 뉴스를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뉴스의 내용이 대부분 어른들의 이야기이고 모르는 단어도 많아서 어린이인 제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은상 서연후 I 신문 기사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동상 김가빈 I 글이 별로 없고 설명이 별로 없는 뉴스가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Q7. 뉴스일기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이정아 I 모르는 단어가 많은 뉴스도 포기하지 않고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일기 작성 전에 뉴스는 모두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뉴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는 힘도 생겼습니다.

은상 심지호 I 우리 주변과 세계 소식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졌어요.

은상 김리에 I 세상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상 홍은채 I 글을 더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었고, 어려운 단어들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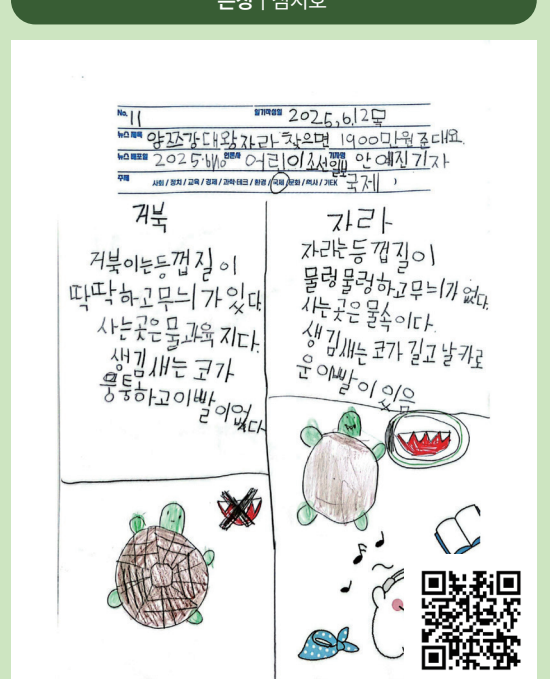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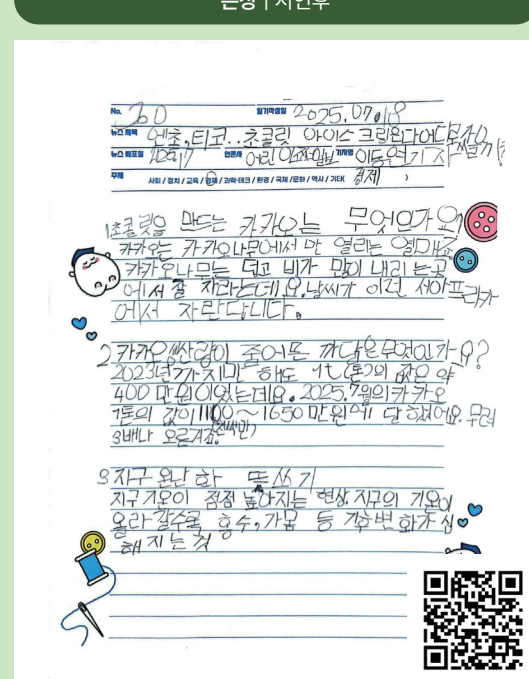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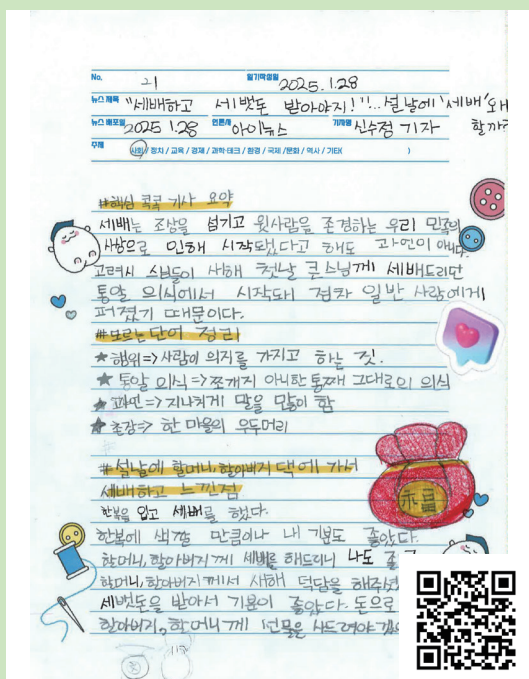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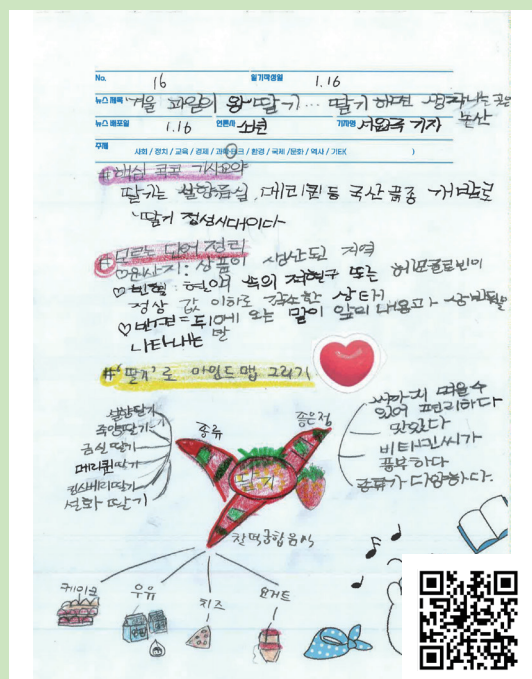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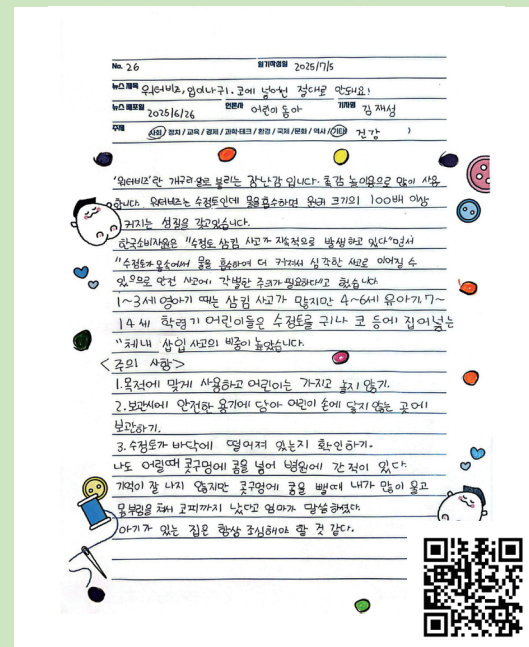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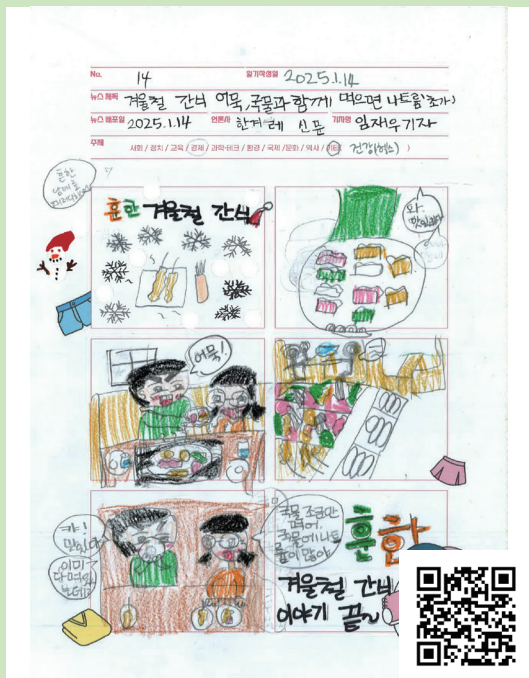
금상 이정아 I 선물이다. 선물처럼 나에게 와서 뉴스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나를 똑똑하게 해주었고, 큰 상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은상 서연후 I '나의 주변과 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망원경' 입니다.

은상 심지호 I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생각의 발견이다.

동상 최유찬 I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란?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의 날개를 펼칠수 있는 날개다!

어린이 저학년 수상작



금상 | 이정아

동상 | 함소울

동상 | 박지안

수상작 인터뷰

어린이 중학년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금상 조용현 I 처음으로 도전하는 공모전이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열심히 썼는데 좋은 성적을 내서 기쁩니다.

은상 김주원 I 안녕하세요,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참여해 은상을 수상하게 된 중탑초 4학년 3반 김주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가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매일 꾸준히 쓰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한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부족한 제 작품을 좋게 봐 주시고 은상에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소 일상생활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더 흥미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박수정 I 진짜 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동상 민지우 I 1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 읽기를 하면서 배경지식도 늘고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동상 이소은 I 일단 먼저 저의 생각도 키우고 다양한 뉴스도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참여해 보았는데 수상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무엇보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게 이끌어주신 <아주 특별한 도서관 >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조용현 I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황선하 I 양민경 선생님(아주 특별한 도서관)께서 추천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이주아 I 독서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허지원 I 담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Q3. [나만의 TIP⑦]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조용현 I 빅카인즈에서 오늘의 이슈로 뜬 기사를 주로 보았고, 순위에 있는 기사 중에서 흥미가 생기는 기사를 검색해서 일기의 어떤 형식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골랐습니다.

은상 김주원 I 제가 관심있는 내용이 담긴 제목의 기사를 골라 읽어보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상 박수정 I 보통 1개의 주제만 아닌 여러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많이 읽고 적었습니다.

동상 홍다인 I 매일아침 어린이신문을 읽고 그날 읽은 기사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은 뉴스로 일기를 썼습니다.

동상 홍이레 I 엄마가 ‘어린이 동아’를 구독해 주셔서 거기에서 내가 쉽게 쓸 수 있거나 재미있는 뉴스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Q4. [나만의 TIP⑧] 제7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조용현 I 기사에 제 의견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기사들로 골랐습니다. 찬-반 논쟁, 편지 형식, 일기 형식, 시 형식 등 글을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상 황선하 I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상 김주원 I 뉴스일기를 쓸 때 자신이 고르기 쉽고 뉴스일기가 잘 써지는 주제로 판단되는 주제나 좋아하는 주제를 우선으로 써 보면 쉽습니다.

동상 민지우 I 기사를 먼저 정독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된 후에 뉴스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시켜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상 이주아 I 신문에서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 비법입니다.

Q5. [나만의 TIP⑨]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조용현 I 작성한 기사에 가짜 뉴스가 섞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매체에서 검색을 해보고 검증을 했습니다.

은상 박수정 I 저는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기사를 읽고 든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달라서 의견을 존중하고 알아줘야 되기 때문 입니다.

은상 황선하 I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기사를 잘 이해해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동상 이소은 I 저는 나의 생각을 쓸 때를 가장 중요히 여겼습니다. 비판적인 면으로도 생각해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생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동상 허지원 I 출처를 정확하게 쓰는 것과 기사의 내용과 내 생각을 거짓없이 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Q6.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조용현 I 분야가 다양해서 평소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기사를 검색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상 김주원 I 같은 주제 안에서 어떤 뉴스를 볼지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를 야구로 정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신문사나 내용 등을 보면서 내 뉴스일기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뉴스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은상 박수정 I 뉴스일기를 작성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뉴스일기를 적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것 입니다. 원래도 바쁜데 뉴스일기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동상 이주아 I 뉴스일기를 신청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Q7. 뉴스일기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조용현 I 뉴스를 볼 때, 어떤 형식의 뉴스일기 글과 어울릴지 생각해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맞춤법도 틀린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은상 황선하 I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사회, 과학이 쉽고 재미있어 졌습니다. 또 부지런한 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은상 김주원 I 작년에 저는 어머니께서 인쇄해 가져다 주신 뉴스일기 양식에만 작성하였는데 올해에는 제 태블릿으로직접 뉴스일기를 작성해 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는 달리 그림을 많이 넣어서 뉴스일기를 작성하기보다는 글을 많이 넣거나 제 생각을 많이 썼습니다.

동상 홍이레 I 뉴스일기 작성 전에는 글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뉴스일기를 쓰다보니까 글을 쓰는 방법을 알게되고 독후감도 손쉽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조용현 I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시작은 귀찮지만 끝내고 나면 상쾌한 ‘목욕’과 같다.

은상 박수정 I 제가 뉴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준 훌륭한 것 입니다.

은상 황선하 I 내 몸의 70%는 물이듯 내 생각의 70%는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대한 생각이다.

동상 민지우 I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나의 일상이자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동상 이소은 I 저에게 뉴스일기란 한 개의 뉴스를 가지고 만든 아주 크고 넓은 마인드맵입니다.

수상작 인터뷰

어린이 고학년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금상 김예린 I 뉴스읽기 뉴스일기라는 제목을 봤을 때 평소 뉴스를 즐겨 읽는 편이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도전해 봤습니다. 예상 외로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은상 백민영 I 이렇게 큰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뿌듯해요. 관심있는 기사를 읽고 쓴 일기로 상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상 이서영 I 감사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만약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동상 김래인 I 그저 한 번의 경험을 목적으로 시작한 대회에서 덜컥 수상을 하니 기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큰 도움을 줄 경험을 만나 정말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상 김서원 I 공모전에서 수상 되어 너무 기뻐고, 글을 쓰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한 번에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김예린 I '뉴스읽기 뉴스일기' 라는 제목을 봤을 때 평소 뉴스를 즐겨 읽는 편이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도전해 봤습니다. 예상 외로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은상 백민영 I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점점 일기를 쓰다보니 흥미롭고 알게되는 것도 많아졌어요. 나중에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다시 참여할 것 같아요.

은상 이서영 I 담임 선생님의 지도 하에 시작하게 되었지만 하면 할수록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점차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동상 김주원 I 지난 번 공모전에 수상하지 못한 속상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김예린 I 요즘 핫한 이슈를 쓰거나 제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뉴스를 골라 작성했습니다. 주제가 생소한 뉴스도 읽으며 더 많은 분야의 뉴스를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은상 백민영 I 처음에는 관심 있던 연예계, 미디어 관련 주제를 골랐었고 화제성이 큰 뉴스 위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관심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도 생각해 보고 싶어 정치,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뉴스도 보았습니다.

은상 이서영 I 청소년 나이대와 관련된 뉴스와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를 찾아서 제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골랐습니다.

동상 남서현 I 뉴스는 선생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동상 이다인 I 뉴스는 선생님께서 기사를 골라주셨고, 고를 수 있었을 때는 내가 관심있는 분야나 자신있는 내용이 있는 기사를 골랐습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7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김예린 I 눈에 잘 띄는 디자인과 재치 있는 문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은상 백민영 I 기사를 읽고 나서 바로 떠오르는 생각들로 초고를 작성하고, 이후에 초고를 다듬으며 그림과 함께 꾸며서 작성했습니다.

은상 이서영 I 뉴스와 관련된 그래프 또는 표를 찾아 그리면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선 이해하고 뉴스일기를 썼습니다.

동상 최로아 I 나의 생각이 잘 들어나게 심도있게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상 김서원 I 그 기사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과 기사 내용과 섞어서 다채롭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김예린 I 느낀 점을 잘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라 생각하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상 백민영 I 내 생각을 직접 정리하고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은상 이서영 I 뉴스를 읽고 난 뒤 나의 생각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상 김래인 I 뉴스에 나온 중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을 써볼 수록 더 잘 생각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글을 쓸 수록 나의 의견이 정말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기에 나의 생각과 의견을 쓰는 부분을 가장 고민하며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동상 김주원 I 기사를 잘 이해하여 그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김예린 I 일기를 30회 이상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30'이라는 숫자만 보고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읽을수록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재밌다고 느껴져 뉴스일기 작성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상 백민영 I 처음 뉴스일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직접 사전을 찾아가며 새롭게 알아가는 것의 뿌듯함을 알게됐어요.

동상 남서현 I 저는 내용보다 첫 문장을 무엇으로 할 지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첫 문장에는 제 생각이 잘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첫 문장으로 글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때는 첫 문장을 정하는데 5분 이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Q7. 뉴스일기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김예린 I 읽고 싶은 주제의 뉴스만 읽다가 다른 주제의 뉴스를 읽으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새로운 이슈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부족했던 지식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은상 백민영 I 요즘 세상의 이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한, 어휘력도 늘었고 무엇보다 뉴스를 직접 찾아서 읽게 되었어요.

은상 이서영 I 친구들 중에 뉴스를 찾아서 읽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뉴스를 잘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일기를 쓰면서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게 알게되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뉴스를 읽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동상 이다인 I 요약하는 실력이 더는 것 같아요.

동상 김서원 I 뉴스일기 작성 전에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김예린 I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안경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이슈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밝은 생각은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은상 백민영 I 뉴스와 친해지게 만들어준 존재다.

은상 이서영 I 다양한 세상이야기를 풀어낸 나의 이야기 보따리.

동상 최로아 I 나의 생각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게된 계기.

동상 김래인 I 저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뽕틀입니다. 왜냐하면 뉴스일기를 쓸 수록 나의 한계를 넘어서며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작 인터뷰

청소년 중등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금상 오연수 I 1년동안 꾸준히 활동해 온 것이 뿌듯하고 제가 금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기사를 읽으며 어려운 점이 많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생각 덕분에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은상 임빈 I 제3회 때부터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기쁩니다. 상 받는다는 생각은 딱히 안 하고 있었는데 은상을 받게 돼서 놀랐습니다. 뉴스일기를 통해 얻는 것이 많아 참가한 것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은상 정은서 I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일기에 참여한 정은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뉴스를 고르며 읽고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글을 읽고 공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상 김도이 I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수상 소식이라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동상 김민서 I 이번 글쓰기 공모전에 참여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써봤는데, 제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을 쓰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글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오연수 I 아직 학생이라 배울게 많은데 좋은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임빈 I 3회때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 당연하게 참가했습니다.

은상 정은서 I 논술학원 선생님께서 참여해보는게 어떠냐고 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이서율 I 공모전 홍보는 작년에도 보았지만 해내지 못할 것 같아 올해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께서 공모전 참여를 권유하셨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이지윤 I 작년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뉴스를 접하면서 제 문해력과 매체 정보의 비판성을 키울 수 있던 경험 이었던 것 같아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홍정우 I 몇 번이나 도전해 보았는데 드디어 상을 타네요. 너무 기쁘고 다음에 또 도전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Q3.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오연수 I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주로 골라서 읽었습니다. 요즘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맞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사를 고른 기준은 제가 읽고 이해가 되는 기사를 위주로 골라서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글을 읽어야 내가 생각한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상 임빈 I 다양한 분야를 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사를 쓰며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비교해 보며 같은 기사의 차이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은상 정은서 I 그날의 뉴스들을 살펴보면 가장 흥미롭고 무슨 내용일지 궁금한 뉴스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상 홍정우 I 제가 신문을 펼쳤을 때 제 마음에 들면서도 많이 안해 보았던 새로운 분야의 기사들로 되도록 씁니다.

동상 김도이 I 제일 먼저 제목을 훑어보며 내가 관심이 있거나 흥미있는 분야인지 파악해보고 일기쓰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기사를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면 일기를 더 성실히 쓸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상 김민서 I 글을 읽으면서 궁금증과 머리속에서 읽은 게 정리가 된 뉴스들을 선정해서 뉴스일기를 작성했습니다.

Q4. [나만의 TIP③] 제7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오연수 I 되도록이면 창의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맞는 이미지들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가며 확장해나가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은상 임빈 I 기사에 관한 기본 바탕이 될 내용을 자세하게 찾아보고 어떤 내용을 위주로 쓸지 한 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상 정은서 I 가장 중요한 뉴스의 내용을 요약하여 쓰고 나의 생각과 간단한 그림이나 표, 사진들을 사용하여 뉴스일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상 김민서 I 뉴스를 읽는 것에서 끝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더 확장해 깊이 파고들면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끌리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상 이서율 I 뉴스를 읽는 것에서 끝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더 확장해 깊이 파고들면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끌리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상 이지윤 I 저는 뉴스를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표시하고 그에 대한 관련자료나 정보를 찾아 추가하면서 저의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저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동상 홍정우 I 최대한 뉴스를 여러 분야로 하고, 신문을 오리고 나서 는 요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오연수 I 기사를 읽고 난 후의 나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사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기사에서 자신만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은상 임빈 I 기사내용 요약보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많이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쓰는 것 또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은상 정은서 I 나의 솔직한 생각을 쓰고 표현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상 김도이 I 기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일기로 기사를 정리, 요약할 때도 바르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김민서 I 글씨를 일정한 크기로 적고 있는지와 다양한 형태로 꾸미며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상 이서율 I 요약과 주제 탐구입니다. 뉴스를 요약할 수 있다면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거기서 나아가 탐구까지 한다면 그 때 뉴스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상 이지윤 I 저는 뉴스를 읽으면서 올바른 비판적 사고로 상황에 대해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읽다보면 그 상황에 대해 더욱 몰입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편향적으로 생각이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 정보의 사실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뉴스를 읽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홍정우 I 일단 여러 NIE 선생님들에게서 배운 요약, 확장, 적용 순서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Q6.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오연수 I 신문 기사를 읽고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사 내용과 어울리는 표현 방식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방식을 표현하는 과정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은상 임빈 I 정치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상 정은서 I 뉴스 요약이나 나의 생각 등을 쓰고 있을 때 어떻게 써야 할지 꼬여버렸던 적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상 김도이 I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수상 소식이라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동상 김도이 I 매일 매일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사를 정리, 요약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 귀찮아도 매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막상 시작해서 한 편을 마무리하면 뿌듯했습니다.

동상 김민서 I 글을 쓸때 손목이 아파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동상 이서율 I 배경지식이 없는 분야의 뉴스는 일기 작성은 커녕 읽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정치나 경제 기사를 읽는 것은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동상 이지윤 I 저는 뉴스를 읽으면서 올바른 비판적 사고로 상황에 대해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읽다보면 그 상황에 대해 더욱 몰입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편향적으로 생각이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 정보의 사실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뉴스를 읽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홍정우 I 매번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고민되었습니다. 매번 아이디어를 내는 데만 30분씩 걸렸습니다.

**Q7. 뉴스일기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오연수 I 일기 작성 전까지는 사회에 무관심하였는데 기사를 읽고 일기를 작성해보니 사회에 흥미롭고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어 사회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기사중에 환경에 관한 기사가 많았어서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은상 임빈 I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또한 실력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은상 정은서 I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된 것 같고 평소 관심이 없던 분야에 대해 뉴스일기 덕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상 김도이 I 뉴스일기를 작성하고 달라진 점은 종이 신문을 보며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어서 관심분야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긴 글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 요약하다보니 글의 핵심만 뽑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정리 방식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매일 뉴스일기를 작성하다보니 글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상 김민서 I 뉴스를 잘 안 읽었는데 뉴스일기를 하면서 뉴스를 읽게되고 끝나고 나서도 종종 뉴스를 확인하며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되었습니다.

동상 이서율 I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전에는 뉴스를 읽기만 하였다면, 뉴스일기를 작성하고부터는 뉴스에 대해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더불어 꾸준함도 얻었습니다.

동상 이지윤 I 제가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전에는 뉴스가 나와도 다른 채널로 돌리기 급급하였고, 허위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일기를 작성하고 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상공간에서의 여러 허위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동상 홍정우 I 제가 뉴스일기를 30개 이상 해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고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식, 성취감, 끈기 등 여러 가치를 얻어갑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오연수 I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미래다.

은상 임빈 I 뉴스일기란 '안경'과 같습니다. 사회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상 정은서 I 때때론 힘든 기억이었지만 다 끝내고보니 소중한 추억인것 같습니다.

동상 김도이 I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수상 소식이라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동상 김도이 I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하루를 마감하는 일이다.

동상 김민서 I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도와줍니다.

동상 이서율 I 세상을 볼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세상을 잘 들여다보게 되었고, 하나하나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상 이지윤 I 저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콘서트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상 홍정우 I 저에게 있어서 뉴스읽기 뉴스일기란 넘고 싶은 장벽입니다.

수상작 인터뷰

청소년 고등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금상 조한나 I 이번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작년에 참여해 동상을 수상했었는데 올해 다시 도전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 더욱 뜻깊고 뿌듯합니다. 매일 뉴스를 읽고 일기를 작성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평소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어서 좋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쓰다보니 작성하는 방법도 터득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은상 고다연 I 뉴스 읽기를 통해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읽으며 생각을 넓혀가고 싶다.

은상 좌이현 I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감정이 듭니다. 9월 중에 수상자 발표가 나온다는 소식을 보고, 24일이 되는 오늘까지 매일 공모전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늦은 시기에 공모전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문장을 녹이는 역량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매일이 긴장되는 하루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고침하던 중 수상자 명단에 있는 저의 이름을 보고 생각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기쁨과 동시에 많이 놀랐습니다.

동상 나다현 I 시간 가는줄 모르고 작성할 때도 있었고, 가끔은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다 작성하고 나면 항상 배우는 게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상 한희수 I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등부에서 동상을 수상한 한희수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공모전을 개최해 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경제 지식도 쌓을 수 있고 세상을 넓게 보는 시각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성장의 기회였던 것만큼 다음 7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조한나 I 작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전 안내를 보고 처음 뉴스일기에 도전하게 됐었습니다. 작년에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 너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높은 상을 수상하기로 목표를 가지고 이번 년도에도 참여를 하게되었습니다.

은상 고다연 I 몇 년 전에 참여했을 때 많은 것을 배워서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은상 백지윤 I 평소에도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서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 찾아보다가 발견했어요.

은상 좌이현 I 2025년 열아홉 살에 접어들면서 취업 스펙 향상을 위해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해 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기 초 지도자 선생님인 노미경 선생님의 권유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작성이 가능해졌다며 저의 역량을 배로 발휘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취업을 향한 스펙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목표로 도전을 결심하였습니다.

동상 나다현 I 학교에서 친구들과 단체로 참여하게 되었던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상 한희수 I 선생님의 권유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3. [나만의 TIP⑥]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조한나 I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주로 골라서 읽었습니다. 요즘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맞게 적응할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사를 고른 기준은 제가 읽고 이해가 되는 기사를 위주로 골라서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글을 읽어야 내가 생각한 글을 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상 고다연 I 가끔가다 내가 쓰고싶은 주제가 생각나면 그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한다.

은상 백지윤 I 첫 번째로 무조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경제 분야에 치우쳤지만 그래도 이 공모전을 '장기간 꾸준히' 하려면 나의 흥미대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은상 좌이현 I 평소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아 어려운 주제는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쉽고,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뉴스를 선정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전반적인 틀만 알고 있었던 뉴스로 선정하니 기존 배경지식과 더해져 의견 작성이 부드럽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동상 나다현 I 뉴스 기사를 고를 때 시간을 가장 많이 소요했는데요. 특히 찬반이 나누는 주제일수록 중립을 유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상 한희수 I 은행권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공모전을 준비했던 터라 경제와 금융에 관련된 뉴스를 주로 봤습니다. 또한, 제가 취업하고 싶었던 기업의 기사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Q4. [나만의 TIP⑥] 제7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조한나 I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스일기를 작성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생각과 느낀 점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실행하기 전에 뉴스를 읽은 후에 자신만의 언어와 문장으로 재구성하면 더 개성 있고 의미 있는 뉴스일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은상 고다연 I 기사를 찾고 주제를 생각하기보다 평소에 궁금했거나 흥미로운 주제가 생각나면 그에대한 기사를 찾는 편이다.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되고 글이 쉽게 써진다.

은상 백지윤 I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림을 최소화하고 형식상의 다양성을 추구하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뉴스 요약 - 추가 자료 조사 - 느낀 점 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의 뉴스까지 비교해보거나, 뉴스를 누군가에게 소개해보는 등 다양한 형식을 시도했던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Q5. [나만의 TIP⑥]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조한나 I 심화활동입니다. 단순히 뉴스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뉴스에서 다룬 주제나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스일기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상 고다연 I 논리 전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상 백지윤 I 비판적으로 뉴스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나의 생각을 충분히 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은상 좌이현 I 해석의 다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차원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면 그저 공감하며 끝나는 글이 되지만, 재해석을 거쳐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가지면 해당 뉴스에 대한 이해도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한 편씩 작성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비판적인 시각을 보유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뉴스 이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기본 옵션으로 두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검색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작성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동상 나다현 I 내 생각과 의견을 적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같은 기사를 읽어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 인데요. 친구들과 다 같이 뉴스일기를 진행할 때 같은 내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참 재밌었습니다.

동상 한희수 I 궁금증을 가지고 뉴스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긴 글의 뉴스를 읽고 '아, 저런 내용이구나' 보다는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뉴스를 읽었습니다.

**Q6.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조한나 I 어려웠던 점은 매일매일 꾸준히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계속 작성하는 습관이 생긴 줄 알았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귀찮아져서 못 작성하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방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꾸준히 작성했습니다. ㅎㅎ

은상 고다연 I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전개해 나갈 때 어려움을 느꼈었다.

은상 백지윤 I 처음에 뉴스일기 작성을 할 때, 열정이 너무 넘쳐서 하루에 하나씩 작성하려던 것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일주일마다 하나씩 작성했더라면 더 좋은 뉴스일기를 완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상 좌이현 I 취업 준비를 비롯한 다른 학업 일정과 동반하면서 매일 꾸준히 뉴스를 보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용어 장벽도 높아 작성하기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새벽에 잠시 시간을 내어야만 작성할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 가족들의 응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하루하루 완성해 나가는 저의 작품을 보며 대단하다며 조금만 힘내라고 해 주신 덕분에 어려워도 다시 한번 찾아보며 완성도를 높여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상 나다현 I 하나하나 정성 들여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상 한희수 I 뉴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제와 사회 용어가 낯설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용어는 인터넷에 공부하는 등 꾸준히게 읽고 학습하자 나중에는 뉴스 대부분을 읽고 이해하는데 극복할 수 있습니다.

**Q7. 뉴스일기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조한나 I 요즘 뉴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면 항상 다른 채널로 돌렸는데 요즘은 흥미롭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경지식이 풍부해진 느낌입니다.

은상 고다연 I 생각하는 법과 글을 더 잘 쓰는 법을 배웠다.

은상 백지윤 I 뉴스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은상 좌이현 I 가장 크게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일기 작성 전에는 뉴스라는 매체를 자주 접하지 않아 채용 과정 중 면접 준비나 전반적인 직무 교육 이해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갈수록 자신감도 많이 낮아지고, 미래가 불확실하였습니다. 하지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가하면서부터는 주변인들에게 하루하루 써내려가는 일기에 대해 인정받고, 더 빠른 뉴스일기 작성을 위해 위해 친구에게 뉴스를 선정하여 저의 생각을 스토리텔링 해주듯 말하기도 하면서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상 나다현 I 저는 경제, 금융 분야의 기사를 주로 이용해서 일기를 작성했는데요. 일기 작성을 위해 관련 기사를 읽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어려운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해낼 수 있는 끈기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동상 한희수 I 하나은행 최종 합격이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은행에 입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공부가 필수였습니다. 그렇기에 뉴스 일기 작성을 통해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경제 지식을 함께 길러나갔습니다. 덕분에 별도의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경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서류 전형에서부터 최종 면접까지 공모전 참가 경험을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조한나 I '당연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께서 뉴스를 보는 습관을 지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뉴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배경지식을 얻고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경험이 많았기에 '아 당연한 것들을 내가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상 고다연 I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자습서다. 글을 쓰는 행위는 스스로 나도 모르게 무언갈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자습서다.

은상 백지윤 I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워터멜론 박하사탕이다. 감자탕 집에 있는 박하사탕에는 손이 잘 가질 않지만, 워터멜론 박하사탕은 그 화한 맛과 수박맛이 퍼져 잘 어우러 진다. 이처럼 뉴스일기 또한 뉴스라는 박하향과 일기장이라는 친숙한 형식이 맞물려 아주 재치있는 새로운 느낌을 뿜어낸다. 이 느낌은 주변인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은상 좌이현 I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

동상 나다현 I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배움의 도약대 같습니다.

동상 한희수 I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디딤돌

청소년 고등 수상작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8647

No.	작가명
12	정지

제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내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작가: 정지

https://naver.me/FN6Sbf3H

No.	작가명
7	정지

제목: **남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건 왜?**

내용: 남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건 왜? 남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건 왜? 남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건 왜?...

작가: 정지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8647

No.	작가명
4	정지

제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내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작가: 정지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8647

No.	작가명
10	정지

제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내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작가: 정지

https://naver.me/8f9t93r

No.	작가명
12	정지

제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내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작가: 정지

https://naver.me/FN6Sbf3H

No.	작가명
7	정지

제목: **남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건 왜?**

내용: 남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건 왜? 남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건 왜? 남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건 왜?...

작가: 정지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8647

No.	작가명
15	정지

제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내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작가: 정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2GBX8Y9VC

No.	작가명
6	정지

제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내용: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수능 시험을 앞둔 너에게...

작가: 정지

수상작 인터뷰

성인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금상 조미나 I 학창 시절에 받은 상 못지않게, 성인이 된 지금 이 수상도 큰 기쁨과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뉴스를 읽고 일기를 쓰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다양한 사건을 다룬 활자의 숲을 거닐며 생각을 정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기록에도 처음 도전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힘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싶습니다.

은상 권다희 I 감사합니다. 평소 뉴스를 보거나 읽지 않았었는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뉴스를 더 자주 보게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은상 임지인 I 개인적으로는 첫 공모전인 까닭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수상을 하면 당연히 기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뉴스에 대한 저의 관심이 뜻깊은 상까지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은상 정예진 I 사회 교사로서 평소 신문과 뉴스가 학생들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강력한 학습 자원이자 비판적 사고의 통로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육아 휴직 기간, 뉴스 일기를 직접 작성하며 그 가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체감했습니다. '늦깎이 엄마'로서 육아에 전념하던 시간, 뉴스 일기는 저를 세상과 이어주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일상에 갇힐 수 있었던 시야를 사회로 확장시켜 약자에게 귀 기울이게 했고, 환경의 소중함과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주 꾸준히 기록한 뉴스 일기는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민주 시민으로서의 주체적인 성장'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였습니다. 뉴스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건강한 비판 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뉴스 일기는 육아로 지친 저의 머리와 가슴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채워준 정신적 위로이자 힘이었습니다. 이는 복직 후 뉴스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수업을 시도할 수 있는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값진 경험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영광스러운 수상까지 하게 되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 및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상 권다빈 I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상 김나연 I 처음에는 매일 뉴스를 읽고 기록하자는 목표로 시작했는데 상을 받고 나니 내가 제대로 뉴스를 읽고, 나만의 언어로 잘 기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뉴스를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제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저에게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를 잘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상 신정현 I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뉴스를 읽고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지나치기만 했는데, 이렇게 한 편의 글로 본격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즐거웠고, 스쳐 지나가던 뉴스들을 붙잡아 글로 남기니 기억도 오래가고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여러모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조미나 I 저는 3년째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처음 지원했을 때, 은상을 수상하며 뉴스일기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성장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새로운 배움을 위해 이번 공모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권다희 I 동생이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함께 참여해보자고 해서 같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임지인 I 대학교에 입학한 뒤 학업에만 몰두하느라 공모전 참여가 계속 미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여름 방학에는 꼭 의미 있는 공모전 활동을 해보자며 마음을 먹고 찾아보던 중, 평소 제가 좋아하는 뉴스와 글쓰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식이 자유롭다는 점과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망설임 없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정예진 I 평소 신문(뉴스) 활용 수업을 진행했던 저의 블로그 기록에 공감을 표시해 주신 분의 블로그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사회 교사로서 뉴스가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상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직접 실천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자 공모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이민정 I 작년에 참여했던 기억이 즐거웠기에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최수진 I 나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앞으로 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공모전을 찾고 있었는데, 뉴스읽기 공모전을 SNS 광고로 보게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최유미 I SNS를 보던 도중에 알고리즘이 공모전 관련 소식을 추천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확실히 넘기며 스크롤 했을 텐데 그 날 따라 유독 알고리즘 추천페이지를 떠나지 않고 유심히 읽어보다 흥미가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알고리즘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조미나 I 다양한 카테고리의 뉴스를 접하려고 노력했고, 읽고 난 뒤 후속 활동을 해보기 좋은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한 블로그 포스트 작성하기, 기사에 등장한 인물에게 편지쓰기, 관련된 내용을 다룬 영상을 보고 감상문 쓰기와 같은 활동을 해보며 한층 넓어진 시각을 경험했습니다.

은상 권다희 I 제가 관심을 가지거나 흥미로웠던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에 확인해보니, 문화쪽 뉴스를 많이 읽었더라고요.

은상 임지인 I 공통적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이슈에 주목했습니다. 뉴스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이 뉴스를 통해 내가 사회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확장해 사고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문화 등의 영역과 연계해 해석하며 다각적인 시각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고민했습니다.

은상 정예진 I 뉴스일기를 작성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시기를 막론하고 폭넓게 살펴보았습

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과 연계성이었습니다. 사회 교사로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가치와 맥락이 풍부한 시사 기사를 중점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삶의 변화에 따른 관심사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엄마가 된 이후 환경, 평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 관련 기사를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읽고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상 권다빈 I 평소에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주로 보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를 골랐습니다.

동상 김나연 I 저는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나 만화, 마인드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으로 붙일 수도 있었지만 이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기도 해서 그림을 직접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해서 다양하게 기록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방식이 보다 자유로워서 옛날신문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해서 꾸미기도 했습니다.

동상 신정현 I 인터넷 어플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 있는 '20s'와 'MY 뉴스'에서 자연스럽게 뉴스를 접합니다. 주요 키워드와 핫이슈가 한눈에 정리되어 있는 코너도 있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 뉴스를 읽게 되고, 또 분야를 가리지 않는 편이라 보이는 뉴스는 대부분 읽어봅니다. 그러다 비슷한 주제의 과거 기사나 관련 글을 알고리즘 추천으로 만나면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이어 읽어 나가며 생각을 확장합니다. 더 궁금해지면 추가적으로 다른 콘텐츠까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출처입니다. 믿을 만한 출처를 확인해야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기준이 세워지고, 제 나름의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상 이민정 I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보려 노력했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상 최수진 I 최대한 다양한 뉴스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뜬 여러 뉴스를 읽다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이슈를 골랐고, 연속성이 있는 뉴스의 경우 비슷한 기사도 찾아보며 시리즈처럼 적어보기도 하였습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7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조미나 I 뉴스를 읽을 때 단순히 사건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를 생각하며 기록합니다. 읽은 뉴스 소재를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키워드를 모아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등 나만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봅니다. 뉴스를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후속 활동을 곁들이면, 생각이 한층 깊어지고 더욱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은상 권다희 I 고른 뉴스 뿐만 아니라 해당 뉴스의 주제에 대한 여러 뉴스를 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은상 임지인 I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뉴스를 읽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기사들을 비교하면서, 보다 입체적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스일기를 쓸 때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고 느낀 점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뉴스를 읽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꼭 ‘나’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상 권다빈 I 주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기사들을 찾아보고 비교하며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상 김나연 I 저는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나 만화, 마인드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으로 붙일 수도 있었지만 이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기도 해서 그림을 직접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해서 다양하게 기록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방식이 보다 자유로워서 옛날신문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해서 꾸미기도 했습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조미나 I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지를 기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뉴스일기는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나만의 성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은상 권다희 I 내가 보고 있는 뉴스나 에세이가 정확한 출처에서 나온 글인지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은상 정예진 I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뉴스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저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뉴스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저의 일상이나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와 실천 의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기’라는 친숙한 형식을 활용하여, 뉴스를 지식으로만 습득하기보다 저의 가치관과 성찰을 담아내는 기록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소소하지만 진정성 있는 꾸준한 기록을 통해 저 자신을 세상과 연결하고 소통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동상 신정현 I 총 두 가지 인데요, 먼저 제 사고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뉴스를 접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날것 그대로 담아두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읽을 때 제 사고가 어떻게 흘렀는지 관찰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정보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인상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뉴스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 생각에도 힘이 생기고, 나중에 다시 볼 때도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상 이민정 I 글의 흐름이 논리적인지 점검하고, 편향된 데이터를 선정하거나 주관적인 분석은 아닌지 경계했습니다.

동상 최수진 I 뉴스를 읽다보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편견을 갖지않기위해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를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Q6.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조미나 I 아날로그 기록에 익숙한 세대가 디지털 기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시대 변화에 발맞춘다고 생각하며 시도해 보니 뿌듯했고, 스스로 잘 했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은상 권다희 I 개인적으로는 나의 생각을 작성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가 지식이 전혀 없는 주제의 뉴스에 대한 생각을 작성할 때, 해당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은상 임지인 I 여러 분야의 뉴스를 읽었지만 그래도 역시 잘 모르거나 흥미가 덜한 분야의 뉴스를 읽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해도가 낮다 보니 기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일기를 풀어내면서, 제가 뉴스를 읽고 느낀 점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효과 있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던 것 같습니다.

동상 최유미 I 뉴스일기를 쓰기 전에는 제 관심사에 맞는 기사만 골라 읽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한 편의 일기를 완성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최소 열 개 이상은 읽어야 했습니다. 뉴스 편식에서 벗어나 균형 있게 기사를 읽는 습관을 들이는 일이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Q7. 뉴스일기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조미나 I 읽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다양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맞닿아 있으며, 서로 다른 세상들을 엮어 보고 자기 삶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은상 정예진 I 두 가지를 크게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민으로서의 소명과 책임 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기여하고 연대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교육자로서의 비전이 확고해졌습니다. 뉴스 일기를 통해 얻은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 의지를 교육 현장에 잘 녹여내야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뉴스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와 문해력, 건강한 시민 의식을 길러주는 데 더욱 집중하고 싶습니다.

동상 권다빈 I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뉴스를 찾아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또한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조미나 I ‘오늘은 읽음 내일은 맑음’입니다. 저에게 뉴스를 읽고 쓰는 일기는 맑은 내일, 건강한 내일, 행복한 내일을 활짝 피우기 위한 성장 일기입니다.

은상 권다희 I 무관심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통로

은상 임지인 I 내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상!

은상 정예진 I 뉴스 일기는 사회적 관심과 소통의 통로이자, 시민으로서, 교사로서 실천하는 삶을 이끈 ‘새로운 시작점’

동상 김나연 I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동상 신정현 I 세상과 내가 함께 써내려가는 공유 문서.

동상 이민정 I 뉴스에 ‘나의 시선’이라는 필터를 씌워 종이 한 장에 표현하는 것.

동상 최수진 I 다양한 지식과 상식을 얻고, 내 의견을 요약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

동상 최유미 I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성인 수상작

[illegible]

No.	① 신작품 작품 전시 및 공연회		발표구분명	2025. 12. 15
보급대상	【전시회 제목】 1월, 2월, 3월 전시회 【전시회 URL】 http://www.artpeople.com/bojup/bojup.html (2025. 12. 15 ~ 12. 15)			
보급기간	2025. 12. 14	연월	기간명	1월, 2월, 3월 전시회 및 공연회
주최	시정 / 군정 / 구정 / 읍정 / 문화재단 / 협회 / 국회 / 정당 / 여사 / 기타)			

문화예

① 동화책 가독
 1월 2주 전까지의 전매권 - 3월 1주 전(1월 15일)
 → (1월 15일, 1월 2주 전까지 동화책 출판권 보유자)

② 일반 어린이 독서권 발급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③ 동화책 가독권 발급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5일 이전)까지 발급

문화예

① 1월 2주 전까지
 1월 2주 전까지 (1월 1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수상작 인터뷰

우수지도자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성록 I 5회 공모전 때 성인부에 참여하여 동상을 수상했었는데 그 때 보다 올해 지도했던 학생들이 상을 받은 것이 더욱 기쁩니다.

김아름 I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1 학생들이 3개월 동안 매주 신문을 보고 일기를 작성하면서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기사의 첫줄조차 읽는 걸 어려워 했는데요,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수상안해도 많이 지원하면 햄버거를 준다'라고 동기를 부여하여 많은 학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ㅎㅎ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형성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 뜻깊고 뿌듯했습니다. 향남 중 1학년 신문으로 배우는 사회 친구들 고마워♡

한중훈 I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글을 읽는 것에 힘들어하는 요즘 아이들과 동화책이 아닌 뉴스를 함께 읽고 활동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끝까지 완주해준 담방초 6학년 1반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상에 힘입어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똑심있게 가보려고 합니다.

권재범 I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우수지도교사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정말 기쁩니다.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대천동대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입니다. 서툴지만 세상을 향해 꾸준히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을 성실하게 기록해 나간 우리 아이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김선현 I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뉴스일기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남주 I 작년에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노미경 I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알게되었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습관이 될 것이며, 취업에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황지은 I 작년에 학교 수행평가로 시사평론 읽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학교로 온 홍보 공문을 보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민경 I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는 5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는 신문과의 연계 활동이 필수적인데, 친구들이 독서와 신문은 별개의 것이고, 막연히 '신문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매일 신문을 함께 읽고, 그중 관심 있는 기사를 뉴스 일기장에 기록하도록 하면서 신문과 친해지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이 더 큰 의미와 동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매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저와 아이들 모두에게 하루의 일상이자 즐거움 도전입니다.

Q3. [나만의 TIP①] 제7회 공모전에 참여하는 지도자를 위해 나만의 지도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서채원 I 아이들과 수업을 하시다보면 교과서의 읽기 자료는 아무래도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는 관련 있는 내용으로 기사를 찾아 주 1회 정도 기사를 읽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함께 공부하고 기사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서로 토론하며 1차시 가량을 보내고 이에 대한 뉴스일기는 주말 과제로 주었습니다.

강주현 I 일주일에 두 세 편 꾸준히 쓰게 지도하다 보면 어느새 30편 이상 작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작성한 뉴스일기를 나중에 스캔할 때 선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할 때 뉴스일기에 글씨나 그림 모두 진하고 선정하게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저런 부분에서 고쳐야 할 점이나 보충할 점들에 대해 짚어주시면 뉴스일기 완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김현경 I 기사가 전달하는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제목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맥락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말과 글의 힘을 키우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지 않는 사건의 개요부터 구체적인 진행상황까지 맥락을 갖춘 긴 글을 읽는다는 것은 큰 집중력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긴 글을 읽어내야 하는 학생에게는 '정독체력'이 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읽기는 단어읽기로도 이어집니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 그 단어를 넣어 다시 읽게 하는 과정이 그 핵심입니다. 단어 하나를 모르고 넘어가면 전체 문장의 맥락을 놓치기 쉽고, 이는 곧 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사의 여러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능력도 생겨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성록 I 평소에 학급 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꾸준히 뉴스읽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공모전을 소개해준 후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상한 일기를 보여주고 두 세번만 일기를 수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 스스로 잘 했습니다.

Q4. [나만의 TIP②] 뉴스일기장 작성을 지도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무엇인가요?

김아름 I 신문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기입니다.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를 분석하고 기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5줄로 요약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꼭 한 줄 이상 생각하여 적을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한중훈 I 뉴스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보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신만의 해결방법이나 의견을 제시할 줄 아는 것까지가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이 정립되지는 않고 여러번의 토론과정과 다양한 자료를 읽게 하여 연습시켰습니다.

권재범 I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뉴스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사실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뉴스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연결'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김선현 I 신학생들이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꾸준히 칭찬하며 동기부여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정남주 I 저는 뉴스일기를 쓰는 시간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나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의 입장을 정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뉴스일기의 목적인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글쓰기에 익숙한 아이들이 연필로 꼭꼭 눌러가며 글을 쓰는 경험 자체도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격려해 주었습니다.

노미경 I 상황별, 주제별 뉴스를 골고루 보게 하였고, 습관이 될때까지는 매주 점검하였습니다.

황지은 I 단순히 기사 내용을 정리하거나 나열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찬반이 나뉠 수 있는 논제를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읽고 의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팩트체크를 위하여 통계자료나 사진 및 그래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경 I 저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① 매일 신문과 만나기 ② 가르치려 들지 않고 칭찬하기 ③ 생각에 날개 달아주기 신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매일 어린이 신문을 소리내어 읽기'를 했어요. 어린이 신문의 경우 쉽고 재미있는 기사가 많아 흥미 유발자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짧은 기사부터 중요 내용을 밑줄치고 소리내어 읽으며 읽기 유창성도 확보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관심있는 기사를 선정하여 아주 쉬운 기사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자유롭게 쓰게 합니다. 친구들의 생각을 공감해주고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신문을 제대로 잘 읽게 하되, 가르치려 들지 않았어요. 어려운 어휘는 어머님들께 풀어서 설명해 달라 도움 요청을 했구요. 그래야 자유롭게 올바른 사고와 표현으로 이어질거라 생각했습니다.

강주현 I 뉴스 내용을 단순 요약만 해서 뉴스일기를 완성한 친구들은 다시 쓰거나 본인의 생각을 추가하라고 지도했습니다.

Q5. 뉴스일기장 작성을 지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김현경 I 학생들 입장에선 누구나 중요한 시험 기간이 겹치면, 학생들의 의지가 현실적인 보상 심리에 쉽게 꺾이는 순간이 옵니다. 당장 눈 앞의 시험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 뉴스 읽기보다는 시험 공부가 훨씬 더 시급한 일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은.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반의 굳센 의지가 자연스럽게 정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또 한 번의 고비였습니다. 그때마다 재능을 발휘한 페이지들을 구체적으로 꼭! 집어 칭찬하는 것으로 동기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성록 I 고학년이나 성인이 아니다보니 컴퓨터로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모두 쓰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4월에 시작하여 7월에 마무리를 해야해서 시간이 촉박했던 점도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번 7회는 지금부터 1년동안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으니 시간여유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아름 I 중1학생들은 다양한 글을 접해보지 않아서 문해력이 낮은 문체점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이해시키는 것에 많은 피드백이 오갔습니다. 일단 경제 용어, 시사용어를 잘 모르고, 가끔 신문에 한자가 나오면 해석하는데 어려워했습니다.

한중훈 I 동화책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뉴스를 읽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다소 강압적인 출발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들 스스로 토론하고 더욱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을 하는 모습에 뿌듯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권재범 I 30편 이상의 뉴스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지치거나 흥미를 잃어 힘을 어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학생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금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과제이자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아낌없이 칭찬하고, 서로의 일기를 공유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그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Q6. 뉴스일기 작성을 지도하며 생긴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기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선현 I 지구의 날이 신문 기사에 있어서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의리가 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직접 쓰레기도 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남주 I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멋지게 꾸미고 싶어 글과 그림으로 정성스럽게 정리한 학생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관심 있게 읽은 뉴스를 꼼꼼히 정리해 내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글쓰기 자체를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 페이지 분량의 일기장을 금세 완성하는 모습을 보며, 그 성장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미경 I 하기 싫어서 억지로 참여하던 학생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수업 시작 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런 뉴스가 떴어요, 라고 하며 소개하던 모습에 뿌듯했고, 큐알코드 및 디자인을 이쁘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생겨 재미와 흥미를 가지며 참여하는 친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황지은 I 작년에 고3이었던 제자가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참여하여 은상을 수상했었는데 졸업 후 대학생이 되어 다시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뉴스일기를 통해 세상을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된 제자가 대견스럽습니다.

양민경 I 저는 <같은 기사, 다른 생각 코너>를 운영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기사는 같지만 기사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다양한 해석이 너무 좋아요. 그 과정을 통해 친구들은 다양한 생각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각은 돌아보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귀한 자세가 만들어져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게 되죠. 기억에 남는 일기장은 몇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뉴스일기>를 써 온 몇몇 친구들입니다.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심지어 중학교 시험기간에도 매일 읽고 씁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며 저도 더 많이 노력합니다.

Q7. 뉴스일기 작성 전후로 참여자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서채원 I 바쁜신 와중에도 아이들을 지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함께 수업 고민을 나누고, 우리 다함께 상향평준화 되자고 늘 모두를 복돋아주시는 정남주 부장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잘 배우고 다져서 저도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강주현 I 우리 반 모두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의 잔소리(?)를 이겨내고 뉴스일기 30편 쓰느라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뉴스 꾸준히 읽으며 세상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 6학년 4반 화이팅!

김현경 I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끈기 있게 완주해 줘서 정말 자랑스럽다! 엄지 척! 선생님은 너희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스스로 활짝 열고 뉴스의 주인공들과 당당하게 대화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단다. 너희들이 써 내려간 뉴스일기는 너희가 살아갈 세상이었단다. 높아졌을 너희들의 눈높이만큼 넓은 세상, 지금처럼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고 너희의 목소리를 내면서 멋지게 살아가렴. 진짜 뉴스 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선생님님이 항상 응원할게!

이성록 I 저도 제5회 공모전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 30편의 뉴스일기를 쓰는 일이 무척 버거운 일이었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해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학생도 있지만 이번 경험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게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김아름 I 향남중 1학년 애들아! 30편 기사 읽는거 너무 힘들었지만 공모 신청할 땐 뿌듯했지? 이 좋은 경험이 너희 중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 입상은 아무도 못한 거 같은데.. 다음 번엔 더 성장하자..^^

Q8. 지도한 참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한중훈 I 약 3달 간의 기간동안 정말 힘들었을텐데 선생님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 졸업까지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자. 담방초 6학년 1반 학생들~ 사랑합니다.

권재범 I 제7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참여를 고민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글쓰기 지도를 넘어,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타인과 소통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보람과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현 I 성실하게 뉴스를 읽고 뉴스일기를 작성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사회를 따뜻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주변에 관심을 가지며 멋지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정남주 I 뉴스일기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세상에 눈을 뜨고, 스스로 생각을 키워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꾸준히 쓰다 보니 자신만의 글쓰는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이 아이들의 태도와 성장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지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취가 크게 다가오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뉴스일기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미경 I 애들아, 애썼다. 우리 함께 햄버거 파티하자!!!! 그리고 또 도전하자!!

황지은 I 성실히, 꾸준히, 아름답게 뉴스일기를 작성해 준 우리 신현고 학생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고 밝아졌길 바랍니다.

양민경 I 우리는 이미 신문과 친한 친구가 되는 행운을 얻었지요? 뉴스를 읽는다는 건 세상을 읽고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처럼 신문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이 뉴스를 읽고 일기장에 남긴 모든 기록은 여러 분의 역사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신문 이야기, 성장 스토리를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꾸준히 함께 해요.

PART

3

공모전 수상 명단



공모전 수상 평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명	성함	소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김수연	-

어린이 저학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이정아	대영초등학교
은상	김리예	경기초등학교
	서연후	대구성동초등학교
	심지호	다원초등학교
동상	김가빈	수원초등학교
	박지안	수원초등학교
	배서우	수원초등학교
	최유찬	수원초등학교
	함소율	수원초등학교
	홍은채	수원초등학교

어린이 중학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조용현	반곡초등학교
은상	김주원	중탑초등학교
	박수정	대구광역시동도초등학교
	황선하	대전두리초등학교
동상	민지우	대진초등학교
	이소은	대구광역시대진초등학교
	이주아	대구광역시신월초등학교
	허지원	반곡초등학교
	홍다인	서정초등학교
	홍이레	평택소사벌초등학교

어린이 고학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김예린	대구경동초등학교
은상	백민영	인천광역시담방초등학교
	백혜빈	신평초등학교
	이서영	인천광역시담방초등학교
동상	김래인	해밀초등학교
	김서원	대전두리초등학교
	김주원	대전두리초등학교
	남서현	해밀초등학교
	이다인	해밀초등학교
	최로아	해밀초등학교

청소년(중등)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오연수	상명중학교
은상	임빈	서울증산중학교
	정은서	광동중학교
	허정원	염광중학교
동상	김도이	대구월서중학교
	김민서	이호중학교
	박소율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이서율	대덕중학교
	이지윤	울산중앙중학교
	홍정우	화곡중학교

청소년(고등)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조한나	원광여자고등학교
은상	고다연	-
	백지윤	태장고등학교
	좌이현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동상	김예나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나다현	삼일고등학교
	신하나	-
	윤하영	인천광역시신현고등학교
	이유진	인천광역시신현고등학교
	한희수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성인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조미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은상	권다희	-
	임지인	전남대학교
	정예진	불암중학교
동상	권다빈	-
	김나연	성신여자대학교
	신정현	경북대학교
	이민정	송실대학교
	최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유미	-

지도자

수상명	성함	소속
우수지도자상	강주현	서현초등학교
	권재범	대천동대초등학교
	김선현	대영초등학교
	김아름	향남중학교
	김은지	삼일고등학교
	김지수	해밀초등학교
	김현경	말글삶
	노미경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서채원	해밀초등학교
	양민경	아주특별한도서관
	이나영	수원초등학교
	이성록	반곡초등학교
	정남주	해밀초등학교
	한수정	서진초등학교
	한중훈	담방초등학교
	황지은	인천신현고등학교

**더 많은 뉴스워기 뉴스일기
수상작 보러 가기**



**제7회 뉴스워기 뉴스일기
공모전 자세히 알아보기**

